

여수 침몰 낚싯배서 9명 구한 부부 '희망영웅상'

복지부 의사상자·굿네이버스 등 의인 수상

정병오·신경숙 부부

당연한 일 했을 뿐, 인명피해 막아 다행

박종엽·김종남씨 등 의사상자 인정

함평 분신 제지 등 몸 던져 타인 구조

몸을 던져 타인을 구한 의인들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병오(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신경숙(“ 세 번째)씨 부부는 최근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예종석)가 선정하는 19번째 '희망영웅' 수상자가 됐다.

정씨는 '화성호'의 선장으로, 신씨와 지난달 8일 투망 작업을 하던 중 여수항으로부터 70km 떨어진 바다에서 침몰하는 9.77t급 낚싯배를 발견했다.

정씨 부부는 지난 2017년부터 여수해양경찰서 '민간해양구조대'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해경에게서



배운 구조 요령을 활용해 배를 정지시킨 뒤 줄을 던졌고, 배에 타고 있던 9명의 목숨을 모두 구했다.

정씨는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 지금 생각해도 위험한 순간에 인명피해를 막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2020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박종엽씨 등 3명을 의사자로, 김종남씨 등 2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 박종엽(사고 당시 52세)씨는 전북 군산시 성산면 산곡마을에 이장이었다. 지난 7월 폭우로 나무가 쓰

러져 도로를 막자 트랙터로 나무를 옮기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뇌출혈로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김종남(47)씨는 지난 7월 4일 함평군 월야면의 한 가게 앞에서 휘발유가 든 통을 들고나와 분신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감씨에게도 불이 옮겨 붙었고, 전신 20~29%에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현대삼호중, 영암군에 1억 상당 후원물품 전달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김형관)이 연암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와 동행하기 위해 나눔에 나섰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지난 4일 영암군청을 방문해 지역 경로당 456곳에 전해달라며 달마지쌀과 영암사랑상품권 등 1억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사진)

또 현대삼호중공업 주부대학 동창회도 영암지역 저소득층 100가구에 쌀과 라면, 화장지 등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1% 나눔제단과 급여 1000원 미만 우수리금 등을 통해 정성을 모아 후원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암·문병성 기자 moon@kwangju.co.kr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새 지도부 선출

광주 지부장에 김재욱·전남은 장관호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신입 지도부를 각각 선출했다.

6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제20대 신입 지도부 선거에서 김재욱(지부장)·송지은(사무총장)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김재욱 지부장은 지난해부터 2년간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송지은 사무총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초등국어교사모임에서 사무국장을 맡아 활동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에는 단독 후보로 출마한 장관호(지부장)·기나영(사무총장) 후보가 당선됐다.

장관호 선임 지부장은 혁신학교 교무부장, 목포 중



김재욱

장관호

등지 회장,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실장, 전교조 본부 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기나영 선임 사무총장은 혁신학교 교무부장, 담양지회 사무국장·참실부장을 역임했다.

20대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사무총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박병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대표 '핸드 인 핸드' 캠페인 동참

박병일(사진)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대표가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핸드 인 핸드' 캠페인에 동참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진행된 캠페인은 사회적경제 상품 구매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박 대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측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홀리데이 인 광주는 사회적경제기업상품몰에서 장애인문화예술단 420PAN의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대광건설, 광주은행 프라임PB센터, 하나은행 광산지점에 전달했다. /백희준 기자 bhj@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구레·곡성 등 이재민에 난방용품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홍식)가 최근 구레군청(군수 김순호)에서 난방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난방용품은 올해 집중호우·태풍 피해 이재민 중 아직 집으로 복구하지 못하고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달됐다. 이재민은 구레·곡성·담양·함평 등 77개 가구 158명으로, 곡성·담양·함평 이재민은 적십자 봉사원을 거쳐 기부물품을 직접 전달 받을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인사

◆추해양에너지

◇선임 ▲경영마케팅본부장(CFO) 겸 경영관리부부장(전무) 오광호 ▲안전관리부부장(CSO) 겸 안전운영부부장(전무) 정기선

◇승진 ▲마케팅부부장(상무) 김종선 ▲안전기술부부장(이사) 정광원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불새 2020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카이로스(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⑪	0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55 UHD 습터(재)	00 연중 라이브(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박원숙의 같이 삼시대(재)	00 12 MBC 뉴스 20 동해수호대 50 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정재영의 이슈인(재)
①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안방 우리말 55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축구야구말구(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②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미니다Q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③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잠깐 쉬엄말 어때요? 25 이 맛에 산다	
④	00 사사건건	00 특선다큐 하늘에서 본 알제리 50 다큐센터리 3일(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좌중우돌 만국 유망기 캠핑 인 코리아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남도에 가요 다시보기
⑥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45 닥터 365 50 시사타지! 따따부따(재)
⑦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⑧	30 누가 뭐래도	30 전교톱10		30 KBC 8 뉴스
⑨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축구야구말구	20 카이로스	00 생활의 달인
⑩	00 가요무대 50 더 라이브	40 개는 훌륭하다	40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00 펜트하우스
⑪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나를 바꾸는 공간 한 평의 삶 스페셜	15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⑫	10 다큐 인사이트(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통합뉴스룸 ET(재)		35 나이트 라인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이톡! 보니 하니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7:15 출동! 슈퍼왕스	12:25 넥스트 히어로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식 e	19:45 싱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07:45 꼬마히어로 슈퍼팩	13:00 EBS 다큐프라임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3:55 한국에 산다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티시테시	14: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당신이 꿈꾸던 아프리카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45 몬카트	->보헤미안 랩소디, 탄자니아
09:00 뽀롱뽀롱 뽀로로	16:15 올리엔 문	21:30 한국기행
09:15 핫도그만 만들어볼까요	16:30 당동명 유치원(재)	->찬바람이 불면 1부
09:30 명탐정 피트	16:50 해오와 해오	우리 집에 마실 오실래요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1:50 EBS 다큐프라임
10:30 한국기행(재)	17:20 마사와 꿈	22:45 로망대로 살아볼까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출동! 슈퍼왕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7일(음 10월 23일 甲申) ☎ 010-9790-8237

36년생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훨씬 알차다. 48년생 중지를 모았을 때 획기적인 방안이 나온다. 60년생 재수불공 한다면 소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72년생 기준과 체계가 바로 사이 흔들림을 최소화 할 수 있다. 84년생 실제적인 활용 가치에 주목하라. 96년생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자. 행운의 숫자 : 25, 81

37년생 발전적으로 이동하는 대국이다. 49년생 분수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털고 일어서야 한다. 61년생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73년생 활기찬 하루가 될 것이나 용기백배 하자. 85년생 원점에서 재검토 해 봐야겠다. 97년생 행방이 묘연하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살펴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13, 64

38년생 속삭여 가려내지 못하고 함께하는 고통이 상당하다. 50년생 치열함 속에는 후유증도 따르게 되어 있다. 62년생 모든 것을 보류하고 온통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74년생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할 때가 되었다. 86년생 응용을 잘 해야 쉽게 타결할 수 있다. 98년생 기왕이면 다홍치마가 더 나은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7, 94

39년생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화목함이 바람직하다. 51년생 순리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이익이 배반하게 되어 있다. 63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보인다. 75년생 적용하기에는 미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87년생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므로 주저하지 말라. 99년생 빨리 통합하고 붙일 이다. 행운의 숫자 : 22, 73

40년생 막연히 추측하면 곤란하다. 52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앞만 보고 뛰어도 된다. 64년생 새가 깃을 치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형상이다. 76년생 안정세를 취하면서 견고해지겠다. 88년생 지켜보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00년생 주변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이의 관심이 모아지는 현 태이다. 행운의 숫자 : 39, 70

41년생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릴 수 있으니 차분해야 할 것이다. 53년생 여러 말을 다 할 필요 없이 핵심적인 몇 마디만 하면 그만이다. 65년생 물이 깊은 곳이어야만 큰 고기가 모이는 법이다. 77년생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법이다. 89년생 심사숙고 해야만 한다. 01년생 사소한 것으로 무너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0, 65

42년생 치밀하지 못한다면 횡간한 일을 당한다. 54년생 일시적인 정세로 인해서 답답함을 면키 어렵겠다. 66년생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라. 78년생 서로 들어맞지 아니하여 예를 먹는 모양새가 전개 된다. 90년생 참된 결과가 이르게 될 것이다. 02년생 한계를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말썽의 소지가 크다. 행운의 숫자 : 20, 75

31년생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판세이니라. 43년생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절실하다. 55년생 기본 틀도 변형시켜야 하는 면모이다. 67년생 활용하기엔 편리해 하되 접근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79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91년생 눈에 떠들러도 못 본 채하고 있는 것이 더 나다. 행운의 숫자 : 13, 59

32년생 다시 살펴보면 분명히 빈틈이 보일 것이다. 44년생 용기 있는 이만이 행운을 잡는 법이다. 56년생 강도 높게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68년생 교세 해 주어만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갈 수 있다. 82년생 성과를 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성국이다. 92년생 입장의 차이에 따른 정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행운의 숫자 : 23, 97

33년생 이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45년생 의외의 방해자가 보이므로 대비해야겠다. 57년생 분명하게 유념해야 할 것이다. 69년생 누구도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끈스 러움이 보인다. 81년생 형편을 감안해서 적절히 처리함이 맞다. 93년생 성과를 미미할지라도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행운의 숫자 : 11, 74

34년생 말하지 않아도 상대 역시 다 알고 있느니라. 46년생 알면서도 모순에 빠지게 되는 어려움이 보인다. 58년생 전방위적으로 살펴지지 않으면 허점투성이가 된다. 70년생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82년생 성과를 확실한다면 당장 실행해도 된다. 94년생 신중해야만 빈틈이 생기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12, 96

35년생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해야 이룰 수 있다. 47년생 주어진 국량에 적절해야만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59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 71년생 편견에 사로잡힌다면 오류를 범하기에 충분하다. 83년생 추진하고 있던 일이 지연되면서 기다리게 되는 위상이다. 95년생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불을 보듯 뻔하다. 행운의 숫자 : 01, 80